

우리나라 織物製織技術에 對한 研究( I )

—三國時代와 高麗時代의 大麻와 紵麻織物을 中心으로—

閔 吉 子 · 李 淳 美

國民大學校 師範大學 家政科

Study on the Technique of Weaving Fabrics in Korea( I )

—focused on hemp and ramie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Korea Dynasty—

Gil Ja Mir. and Soon Mee Lee

Dept. of Home Economics, College of Education, Kook Min University

(1984.6.9 접수)

Abstract

Ancient Korean and China literatures show us that it has been long since people from humbler classes to king most commonly used bast fabrics as materials of their cloth. According to the record of these ancient literatures, highly developed fine bast fabrics and those woven in figures were used as tribute between ancient Korea and China.

In this study we will make a brief research of the history of bast fabric culture from ancient times to the Korea Dynasty in which the bast fabric culture flourished and reached the summit of prosperity. After having compared the bast fabric culture of ancient Korea with that of ancient China in which the bast fabric culture developed very much and bast fabrics were used more commonly as materials of cloth than any other fabrics, we could come to conclusions as follows.

1. Names were given to bast fabrics according to the kinds of bast fibers, the degree of fineness and the containing of figures: Ma-po, Jeo, Jeo-po, Bag-jeo-po, Moon-jeo-po, Po and Se-po. The number of "Seung" which indicated the degree of fineness was attached to the top of each name to show how fine they are.

2. While the bast fabric of 30 Seung is known to be the most fine one of the ancient China, in ancient Korea fine bast fabric of higher than 30 Seung was woven. This fact proves that the technique of weaving bast fabrics of the ancient Korea was more highly developed than that of ancient China.

3. In ancient China the highest Seung number of the ordinary clothes which were put on after putting off livery of grief was regulated to be 15. But in ancient Korea, Sil-la, it was regulated to be 28. Judging from this fact, we may say that the consumption level of the ancient Korean people in cloth was higher than that of the ancient China people.

4. The reason why in ancient Korea the technique of weaving bast fabrics was so highly

developed is supposed to be that the ancient Korean people preferred elegant, refine and simple taste in cloth.

5. The excellent bast fabric culture of the ancient Korea flowed into ancient Japan. It proves that Korea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he history of textile development of the world.

I. 緒 論

우리나라는 古代로부터 大麻와 紵麻의 地理的 分布 區域으로서 文獻上 國家成立以前부터 이를 衣料로써 使用하였으며 三國時代에 이르러서는 製織技術이 發達되어 細布가 大量으로 生産되었다.

특히 新羅時代에는 30升紵衫縠, 30綜布, 40綜布 等 極度로 織細한 織物 等이 製織되어 唐나라와의 朝貢貿易品으로써뿐 아니라 各種 多樣한 用途로서 널리 쓰여졌다. 高麗時代에는 紋紵布, 紗紵布 等 織細織物가 製織되어 元나라에 朝貢品으로 보내졌을 뿐 아니라 元나라로 부터 紋紵布의 빈번한 要求를 받았다.

靺鞨織物中 大麻와 紵麻織物은 新石器時代 織物 發詳以後 우리나라와 中國에서 거의 平織으로 製織되어 一般人으로부터 王家에 이르기까지의 衣料로써 使用되었는데 이 織物의 優劣은 升數로써 구별되었다. 古文獻上에 記錄되어 傳해진 우리나라 古代 布織物이 상당히 高升數인 것은 事實이나 實際로 오늘날까지 그 高升數의 布織物이 靺鞨織物製織技術上 어느 程度로 評價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調査·研究가 되어있지 않았다.

本考에서는 古文獻上에 記錄되어 전해 내려온 古代 우리나라의 靺鞨織物類의 織物의 諸般事項(種類, 用途,

其他) 等を 調査하여 東아시아는 물론 大麻, 紵麻織物 製織文化區域中에서 특히 一般衣料로써 吉服(朝服, 深衣), 凶服(喪服)의 材料로서 儀禮服飾의 嚴格한 規定에 의하여 일찌기 靺鞨織物이 使用되어 그 製織技術이 發達된 것으로 알려진 中國의 古文獻上에 記錄된 靺鞨織物類의 諸般事項과 比較·檢討함으로써 古代 우리나라의 靺鞨織物의 製織技術의 水準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더하여 古代製織技術이 우리나라로 부터 傳來된 것으로 알려진 日本의 靺鞨織物의 製織關係에 대하여도 간단한 一端의 調査를 함으로써 靺鞨織物製織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와 日本과의 關係를 알아보고, 나아가서 世界古代織物製織技術發展過程에서의 古代 우리나라의 役割에 대하여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本研究는 文獻調査의 方法에 의하며, 調査 研究年代는 우리나라 靺鞨織物製織技術에 대하여 알 수 있는 記錄이 풍부하게 전하여지는 三國時代와 高麗時代로 하였다.

II. 古文獻上에 記錄된 우리나라 靺鞨織物의 諸般事項

1. 靺鞨織物의 種類·用途·出典

時代	種類	用途	出典
濊, 夫餘, 高句麗, 鶻洛國, 新羅, 高麗	布	衣服, 稅, 貢物, 下賜, 物物交換, 袈裟, 僧施主布袋. 僧襪, 僧服, 庶衣服, 衣料, 親王之費, 互市, 徵收物, 勞賃, 佛教行事, 賫布, 婚禮下賜, 施主, 賻儀, 褒賞, 貨幣, 贍學錢	後漢書東夷傳(濊傳), 三國志 魏志東夷傳(夫餘傳), 北史東夷傳(高句麗, 百濟), 三國史記(百濟本記, 新羅本記, 雜志 第二車騎), 三國遺事(卷第二紀異 第二鶻洛國記, 卷第三塔像 第四, 塔像第四臺山月精王類聖像, 卷四議解第五良志使錫), 宣和奉使高麗圖經(第十八卷道教, 第二十三卷雜俗二), 高麗史(世家卷第三成宗, 世家卷第四顯宗一, 世家卷第十二睿宗一, 世家卷第十六仁宗二, 世家卷第二十五元宗一, 世家卷第二十八忠烈王, 世家卷第三十六忠惠王, 世家卷第四十恭愍王三, 世家卷第四十一恭愍王四, 世家卷第四十四恭愍王七, 列傳卷四十六辛禑一, 列傳卷四十七辛禑二, 列傳四十九辛禑四, 志卷十八禮六, 志卷二十二禮十, 志卷三十三食貨二貨幣, 列傳卷十七安珣).
高句麗	細布	稅, 外人의 要求, 貢物, 國家豫算, 外人의 禮物要求	隋書(高句麗), 北史東夷傳(高句麗), 三國史記(新羅本記), 高麗史(世家卷第二十二高宗一, 世家卷第三十九恭愍王二, 列傳卷四十七辛禑二, 列傳卷四十八辛禑三, 列傳四十九辛禑四).

時代	種類	用途	出典	
濊 新羅 高句麗 高麗	麻	栽培, 産物, 衣服, 衣服資料, 靱鞅履材料	後漢書(東夷傳濊傳), 梁書(諸夷傳新羅), 魏書(高句麗傳), 南史(東夷傳新羅), 三國史記(高句麗本記, 新羅本記, 雜志第二色服), 三國遺事(卷二紀異第二金傳大王), 雜林類事, 慈藏定律, 宣和奉使高麗圖經(第二十卷八)	
挹婁 高麗		麻布	後漢書(東夷傳挹婁), 三國志魏志東夷傳(北沃沮, 挹婁), 高麗史(志卷三十三食貨二料歛)	
高麗	紵(苧)	衣服, 衣服材料, 追徽, 下賜	宋史(高麗條), 雜林類事, 高麗史(世家卷第二十八忠烈王一, 世家卷第二十九忠烈王七)	
高麗		紵布	外國官員에게 下賜, 交易, 品質表示, 互市, 贈物, 不賜, 貢物, 外障의 討索, 物物交換, 手巾, 佛家供養, 徵收物	三國遺事(卷第三塔像第四), 高麗圖經(第三卷城邑貿易), 高麗史(世家卷第二惠宗二, 世家卷第二十明宗二, 世家卷二十三高宗二, 世家卷二十四高宗三, 世家卷二十八忠烈王一, 世家卷第三十四忠烈王七, 世家卷第三十五忠烈肅王八, 世家卷第四十四恭愍王七, 志卷三十三食貨二)
高麗	紵	白紵	庶民衣料, 婦人服, 寢具材料, 寢衣材料	高麗圖經(第一八卷道教, 第十九卷民庶, 第二十三卷雜俗二土産, 卷二十九卷供張二繡枕)
高麗		白紵布	貢物, 旅費, 下賜, 移徙斗 農具費, 徵收物	高麗史(世家卷第二十五元宗一, 世家卷第三忠烈王三, 志卷三十三食貨二料歛, 志卷三十六兵二, 列傳卷二忠烈王二)
高麗		細紵布	貢物, 下賜, 細紵布收歛	高麗史(世家卷第二惠宗, 志卷三十二食貨一貢賦, 志卷三十六兵二站驛)
高麗		紋紵布	元紋紵布求, 紋紵布貢除	高麗史(世家卷第十七忠穆王, 世家卷第三十九恭愍王)
高麗		織紋紵布	貢物, 要求	高麗史(世家卷第三十五忠肅王二)
高麗		紗紵布	貢物	高麗史(世家卷第六靖宗)
新羅		三十升紵衫縠	貢物	三國史記(新羅本記)

2. 靱皮纖維織物の 機織技術의 優劣基準

靱皮纖維織物の 機織技術의 優劣基準은 곧 靱皮纖維織物の 品質의 優劣의 基準에 의하여 決定되었다.

우리나라와 中國은 古代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平織으로 製織된 織物の 狀態가 精단가 粗한가에 의하여 그 品質의 優劣基準이 定하여졌었다.

織物の 精·粗의 判別은 特別 織物の 機細度에 의하였다. 織物の 機細度의 基準은 一定한 織物幅間에 整經된 經糸密度에 의하여 基準되었는데 그 單位는 「升」이었다. 「升」에 대하여 記述한 初期文獻인 「國語」<sup>12)</sup>에는 「七升布」에 대한 記錄이 있는데 韋昭의 註는 이 升에 대하여 「八十纒爲升」이라고 하여 곧 一升은 織物の 幅間에 整經된 經糸數가 80本(은)인 數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幅에 대하여는 「春秋左氏傳」<sup>13)</sup>에 「且夫富如布帛之有幅焉之製度 使無濶也」라고 記錄되어 布帛에 一定幅이 定하여져 있었음이 나타난다. 심지어 「禮記」<sup>14)</sup>에 「布帛精麤不中數 幅廣狹不中量 不弱於布」라고 있어 布帛規格이 철저하였음이 나타난다.

布帛의 幅廣에 대하여는 「漢書」<sup>15)</sup>에 「布帛廣二尺二寸爲幅 長四丈爲匹」이라고 있어 布帛의 幅의 基準量이 二尺二寸이며 匹長이 四丈이었음이 나타난다.

「漢書」<sup>16)</sup>에는 또 「一爲一分, 十分爲寸, 十寸爲尺, 十尺爲丈…」 등으로 記錄되어 10寸이 1尺이며 10尺이 1丈이었음이 나타나므로 布帛 한 匹의 長이 40尺이었음을 알 수 있다.

尺量에 대하여는 尺度의 起源說도 여러가지이며 實際로 出土된 尺度도 一定하지가 않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尺度의 基準量이 正確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

어 2尺 2寸의 布幅에 대하여도 異論이 많으나 本考에서는 朴興秀教授<sup>7)</sup>가 新羅時代에는 周尺이 使用되었으며 新羅末의 製도가 高麗에 傳承되었음에 의하여 漢書律歷志에 의하여 計算한 23.097 cm의 量尺의 길이에 의하여 筆者는 이를 基準으로 하여 新羅時代와 高麗時代의 布幅을 50.8 cm로 算定하여 約 50 cm 強이라고 結論을 내렸다. 中圖의 경우드, 周, 秦, 漢初에서 量尺의 平均値를 23.097 cm로 算定하였다<sup>8)</sup>.

上記와 같은 各種 結果로써 우리나라의 新羅와 高麗의 布幅이 中國의 周代에서 漢代까지의 布幅과 같았음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新羅, 高麗에서 製織되었던 靛皮纖維織物의 「升數」에 의하여 그 織物의 品質의 優劣와 織織技術의 優劣이 判斷되며 나아가서 中國과 直接的으로 升數로 比較되어 우리나라 古代國家의 製織技術의 優劣이 判斷됨이 나타났다.

### 3. 古代우리나라의 靛皮纖維織物을 통하여 본 織織技術의 水準

古代우리나라와 中國에서는 靛皮纖維織物이 「布」로 通稱되었다. 이 사실은 「小爾雅, 廣服」에 「麻紵葛曰布 布通名也」로도 알 수 있다. 「廣韻」의 「布帛也」, 「唐書西域傳」의 「織水羊毛爲布」, 「梁書高昌傳」의 「多草木草實如薔薇中絲如細繸名爲白蠟子國人取織以爲布」 등의 記錄에서는 絹, 毛, 綿의 織物의 命名 또는 素材에 관계 없이 纖維製品一般을 指稱하기도 하여 「布」의 指稱範圍는 時代의 흐름에 따라 廣範圍하여져 갔음이 많은 古文獻上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 靛皮纖維織物의 名稱이 前章에 나타났듯이 「布」로서 大多數가 指稱되었음을 알 수 있다.

本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製織된 30升紵衫段<sup>9)</sup>과 30綜布<sup>10)</sup>, 40綜布<sup>11)</sup>가 靛皮纖維織物品質基準에서 어느 程度의 水準에 到達된 織物이었던가 하는 것은 各種古文獻記錄을 資料로 하여 比較하고 또 新羅 興德王代의 服飾禁制에서 衣料用으로 許用된 高升數의 布織物과 中國의 儀禮服飾의 常用布織物의 升數와를 比較함으로써 우리나라 布織物의 消費水準을 알아보아 우리나라 製織技術이 高度한 水準까지 發達되었던 要件으로서 해석코자 한다. 그리고 더하여 高麗時代에 盛行되었던 布織物(細布, 紋紵布)의 中國과의 朝貢貿易에 대한 狀況을 調査함으로써 또한 당시 布織物 品質水準을 알아보고자 한다.

上記 各種 資料는 곧 古代우리나라의 靛皮纖維織物 製織技術이 最高水準에 있었다고 하는 論證이 되는 結果로 본다.

#### ① 30升紵衫段을 통하여 본 新羅時代의 製織技術

30升到 대하여 中國의 「儀禮服飾考辨」<sup>12)</sup>에서 「……謂績麻三十升布爲布 亦非也 古布幅闊二尺二寸……若容三十升之縷二千四百」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곧 30升布란 二尺二寸의 布幅에 2,400本の 經糸가 整經된 것이다.

그런데 「布帛名物」<sup>13)</sup>에서는 「布幅二尺二寸幅間容升數有多少不同最精者三十升最疏者三升…」이라고 記錄되어 中國에서 靛皮纖維織物의 最高 織細織이 30升이었음이 나타났다. 結局 우리나라에서 製織된 30升布는 靛皮纖維織物로서는 最上의 品質의 布이며, 40綜布는 그 以上の 布織物이었다는 점에서 古代우리나라의 靛皮纖維織物 製織技術은 最高度한 限界以上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新羅服飾禁制中の 布織物을 통하여 본 新羅時代의 靛皮纖維織物 製織技術

新羅 興德王代에 衣料로서의 許容升數限界가 12升~28升이다<sup>14)</sup>. 28升은 眞骨女에게 許容되었으며 12~15升은 平人女에게 許容되었다.

中國의 경우 「衛湜禮記集說」<sup>15)</sup>에 「古者…紡績 其布當有吉凶二種」이라고 記錄되어 吉服과 凶服用으로 나뉘어 製織되었음이 나타난다.

「布帛名物」에는 「冕及爵弁之布三十升 吉服之布十五升 十五升以降皆在凶服之限」이라고 記錄되어 三十升布는 冕과 爵弁의 材料로서 使用되었고 十五升布는 吉服으로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儀禮服飾考辨」形制之尺升條에 「…古者朝服十五升」이라고 있어 吉服을 말함을 알 수 있다. 任大椿의 「深衣釋例」에도 「深衣用布十五升」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15升到 대하여 「儀禮服飾考辨」에서는 「古服之布縷如絲」라고 記錄됨으로써 中國人들은 15升布의 織糸가 絹糸와 같이 織細한 것으로 判斷된 事實이 나타난다. 同書에는 또 「…則三十升難成也. 不必疑」라 記錄되어 있다. 곧 周代에 三十升布가 冕用으로 製織되어 使用되었는데 그 織成이 수월치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布帛名物」에는 또 「首服尊故冠之升倍衣也. 喪服則不必用倍也」라고 記錄되어 머리에 쓰는 冠은 尊하므로 衣料의 升數의 倍의 升數의 資料가 使用된다는 說明이다. 그러나 喪服에는 그런 規定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15升以下가 喪服用으로 使用된다고 하였으나 「布帛名物」 또는 「儀禮喪服」에 麻布가 大功, 小功으로 分類되어 大功은 7升 또는 8,9升布이고 小功은 10, 11, 12升布로 나뉘어 각기에 맞게 使用되었으나 冠用으로

六升, 七升, 八升 정도가 使用되고 喪服으로서는 3升, 4升 정도를 使用한 것이 記述되었으며 「喪服斬衰 衰之布縵如繩, 或類今之麻袋布」라고 記述되어서 喪用으로 쓰인 布의 勻이 느슨 또는 布가 마려와 간다고 表現됨으로써 喪服에 쓰인 布織物의 水準을 알 수 있다.

中國의 靸皮纖維織物製織은 周代 이후로 계속 盛行되었으며 湖南長沙出土品으로서 18升 정도의 細布가 出土되었는데 그 副葬品들을 통하여 上類階級の 墓로서 推定하므로써 그 時代(戰國時代)의 布織物의 消費升數가 나타나고 있다.

漢代에 이르러서도 역시 布織物 生産이 發展된 것으로 나타나는데<sup>16)</sup> 一般적으로 流通된 升數는 10升程度가 많다<sup>17)</sup>.

漢代의 樂浪王阡墓 46號 出土의 布의 升數가 10, 12升 정도로서 대체로 10升 정도로 사용된 實證이 나타난다<sup>18)</sup>.

결국 中國에 있어서의 衣料用 布織物의 升數의 限界가 最高 15升 内外인 것이 나타남으로써 新羅時代 平人女가 12~15升布 使用이 許容이 되었던 記錄은 中國의 실제 使用 升數限界로서 儀禮服飾의 吉服의 升數에 該當됨이 나타남으로써 間接적으로 古代우리나라의 靸皮纖維織物 消費水準이 高度하였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곧 高升數(20~28升以上) 布織物의 選好需要充當을 위하여 機織技術이 高度하여졌던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附記할 것은 禁制의 許用升數가 28升임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그 당시에 使用되고 있던 升數는 그 이상의 升數이었던 것 또한 당연한 것임을 생각할 때 中國의 경우 高貴하므로 30升이 使用된다는 說과 우리나라 女人의 衣服의 材料와 升數가 거의 같았음이 나타남으로써 그 消費水準이 높았다.

### ③ 高麗時代의 紋紵布를 통하여 본 製織技術

紋紵布에 대한 記錄은 高麗史의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다<sup>19)</sup>.

忠肅王 9年, 10년에 元나라에서 高麗에 織紋紵布를 求한 사실, 恭愍王 3년에 紋紵布를 求한 사실, 恭愍王 4년에 元으로부터 紋紵布 貢物에 除함을 받은 사실 등의 記錄은 元나라 사람들의 紋紵布의 選好도가 나타나는 記錄이다.

紋紵布의 製織樣式은 高麗史<sup>20)</sup>에 「細如蠅翼雜以花紋」이라고 되어 花紋으로 製織된 纖細織임이 나타난다.

紋紵布外에 紗紵布, 布羅<sup>21)</sup>의 記錄도 있는데 이러한 各種記錄을 綜合한다면 紵의 素材로서 紋織, 紗織, 羅(網織) 등을 製織하였던 것이 나타난다.

「後漢書」<sup>22)</sup>에 「蘭干細布」의 記錄이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後漢書의 說明은 「織成文章如綾錦」이라고 하고 있어 南方에서 靸皮纖維織物이 綾錦과 같이 製織되기도 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紋紵布 또한 南方의 이러한 布織物과 같은 것일 거라고 생각한다.

結局 이상과 같은 布의 製織은 그 技術의 高度함이 나타나는 實證인 것이다.

## 4. 우리나라 靸皮纖維織物製織技術의 傳播

日本의 靸皮纖維織物(大麻, 紵麻)의 製織에 대하여 研究者에 따라서 見解의 差가 있기는 하나 그 中 特히 日本의 原始織物에 대하여 岡村吉右衛門氏는 著書<sup>23)</sup>에서 日本의 機織文化는 輸入文化라고 했다. 그 渡來는 繩文晩期 彌生文化初期인 紀元前 2,3世紀 또는 약간 빠른 때라고 본다고 했다.

大麻가 우리나라 經由라고하고 紵麻의 경우도 日本 自生種이 있기는 하나 栽培種은 우리나라로 부터 傳來된 것이라고 하고 그 技術도 우리나라로 부터 傳來된 것이라고 記錄하고 있다.

機織에 대하여도 原始機에 이은 布織機인 地機도 우리나라로 부터 渡來된 것이라고 했다.

以上の 記錄은 우리나라 大麻와 紵麻의 栽培, 製織, 織機의 樣狀이 間接적으로 나타나는 좋은 記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製織技術의 傳播의 記錄으로 古代世界織物發展上에서의 우리나라 製織技術의 功獻이 나타난 記錄이다.

## Ⅲ. 結 論

各種古文獻上的 記錄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靸皮纖維織物이 製織되어 一般庶民에서 國王에 이르기까지 常用되었으며 特히 高升數織物과 紋織物은 古代國家間的 朝貢貿易品으로서 重要な 品目이 되었었다.

本研究에서는 高品質靸皮纖維織物의 絕頂限界期로 보는 高麗時代까지의 古文獻上的 記錄에 나타난 靸皮纖維織物類를 拔萃 調査하여, 古代로부터 靸皮纖維織物製織이 發達되어 一般적으로 모든 纖維類織物中가 가장 많이 使用하였던 中國의 경우와 比較研究하여 古代 우리나라의 靸皮纖維織物製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製織靸皮纖維織物은 麻, 麻布, 苧(紵), 白紵布, 紋紵布, 布, 細布 등으로 命名되었으며 그 위에 纖細度의 單位인 「升數」가 더하여져 命名되었다.

2. 30升布는 中國의 경우 最高로 纖細한 布로서 古文獻上에 記錄된 것이 調査됨으로써 古代우리나라의 경우 그 이상의 纖細織物이 製織되어 古代우리나라의 靱皮纖維織物製織技術은 最高度の 製織技術이 있음이 나타났다.

3. 靱皮纖維織物消費水準에 있어서 中國의 경우 吉服에 使用된 限界升數가 15升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新羅의 경우 28升까지의 使用許容升數인 점에서 그 消費水準이 높았음을 알았다.

4. 古代우리나라에서 上記와 같은 最高度の 纖細靱皮纖維織物의 製織技術이 發達되었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素하고 白하여 纖細하고 清雅, 端雅함의 氣風을 選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5. 靱皮纖維織物製織技術의 경우도 絹織物製織技術과 같이 日本에 傳播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古代國家는 名實共히 古代世界織物發達過程에 이바지한 바가 컸음이 나타났다.

### 參 考 文 獻

- 1) 國語魚語上, (周代左丘明撰著).
- 2) 春秋左氏傳, 襄公二十八年條.
- 3) 禮記王制.
- 4) 漢書, 卷二十四下 食貨志下.
- 5) 上揭書, 卷二十一上 律歷志.
- 6) 古尺考, 大戴禮王言篇; 史記; 禮記, 周禮考工記.
- 7) 朴興秀, 李朝尺度에 관한 研究, p. 3.  
\_\_\_\_\_, 新羅 및 高麗 때의 量制度와 量尺에 關하여, p. 227.
- 8) 朴興秀, 上揭書, p. 233.
- 9) 三國史記, 新羅本記, 景文王朝.
- 10) 東國通鑑, 卷九.
- 11) 上揭書.
- 12) 儀禮服飾考辨, 形制之尺升.
- 13) 布帛名物, 布帛篇第一.
- 14) 三國史記, 新羅本記 雜誌第二色服.
- 15) 衛湜禮記集說, 卷一百四十四(儀禮服飾考辨).
- 16) 漢書, 卷二十四上, 食貨志; 黑子 非樂上, 非命下, 辭過篇; 禮記內則, 周禮考工記, 管子撥度篇; 呂氏春秋土容論上農篇.
- 17) 史記, 卷百二十九 貨殖列傳.
- 18) 漢書, 王莽傳.
- 19) 高麗史(本論文 II, 表).
- 20) 上揭書, 列傳 卷二忠烈王.
- 21) 三國史記, 新羅本記 雜誌第二色服.
- 22) 後漢書, 南蠻西南夷列傳.
- 23) 岡村吉右衛, 「日本原始織物の 研究」, 文化出版局, 昭和 52年.